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 땅엿것을 죽이고 위엿것을 찾으라

[골 3:1-2]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엿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엿것을 생각하고 땅엿것을 생각지 말라.

본문은 위엿것을 찾고 땅엿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우리의 주된 관심과 삶의 목표를 위엿것에 두고 땅엿것에 두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위엿것’이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가리킨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다(요 6:29). 또 성경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살전 4:3). 그러므로 우리가 위엿것을 찾는 것은, 우리의 주된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데 두고 천국에 두고 믿음의 일, 전도하는 일,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목표이다.

땅엿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일, 육신의 일, 의식주에 관한 일, 썩는 양식의 일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며 지나가는 것이고 불경건과 부도덕으로 더럽혀져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다 선하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성도에게 정당한 일이지만, 성도들은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주된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땅엿것을 생각지 말고 위엿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계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산 자들이다. 우리의 죄악된 옛 자(自我)는 죄와 세상과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하여 다시 살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된 관심은 땅의 것들이 아니고 하늘의 것들이어야 한다.

[3-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위엿것을 찾고 위엿것을 생각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어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며 우리의 생명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어 있고 장차 그가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 보서 3:20-21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말했다.

[5-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不淨)과 사욕(邪慾)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전통본문) 임하느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지 않고 우리 몸의 죄성을 가리킨다. 그것은 다음에 열거된 음란, 부정(不淨),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등이다. 단순히 몸의 학대인 금욕(禁慾)과 고행(苦行)은 성화를 위한 바른 방법이 아니다(골 2:18-23).

‘음란’은 정당하지 않은 모든 성행위를 가리킨다. 성(性)은 정상적 부부 관계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부정’(不淨)은 생각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더러운 것을 가리킨다. ‘사욕’(邪慾)과 ‘악한 정욕’도 정당치 않은 감정과 욕망을 가리킨다. 이 네 가지의 말들은 주로 성적인 죄악에 관계된다. 이 세상은 언제나 음란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음란물들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음란한 풍조들을 조심해야 한다. 성도들은 남녀

관계를 항상 조심해야 한다. 성도들의 옷차림도 단정해야 한다(딤후 29). 미니 스커트나 앞이 파진 옷이나 소매 없는 옷이나 옆이 갈라진 치마나 딱 들러붙는 바지 등은 피해야 한다.

‘탐심’은 주로 물질에 관한 말이다. 탐심은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다. 탐심은 하나님 대신 물질을 최고 가치로 두는 우상 숭배이다. 우리는 탐심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환경여건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고 말했다. ‘이것들’은 음란, 부정(不淨), 사육, 악한 정욕, 탐심을 가리킨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성도는 이런 죄악들을 회개했지만, 회개치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음란과 탐심의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

[7-8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忿)과 노(怒)와(원분) 악의와 훼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다.

우리도 과거에 음란과 탐심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 믿고 죄 씻음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옛 죄악성들을 다 죽이고 그 행위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 본문은 우리가 버려야 할 죄악들을 또 열거한다. 분과 노와 악의와 훼방과 입의 부끄러운 말 등이다. ‘악의’(惡意)는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리키고 ‘훼방’은 남을 말로 비방하는 것을 가리킨다. ‘부끄러운 말’이라는 원어(아이스크롤로기아)는 더러운 욕을 가리킨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

[9-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이는 너희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었음이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위에 열거한 악들에 더하여, ‘거짓말’은 매우 나쁜 악이다. 거짓말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일 때에 사용한 것이다. 마귀의 근본적 특징은 거짓과 속임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특징은 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말이 버릇이 되지 않도록 사소한 일에서부터 진실 훈련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시며 진실한 자를 사랑하신다.

‘옛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정죄되었던 옛 자아를 가리킨다. ‘새 사람’은 구원받은 새 자아를 가

리킨다. 그 새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다. 구원의 두 요소는 지식과 도덕성이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때는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이다.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죄악과 거짓을 버려야 한다.

[11절] 거기는 헬리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野人)[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Scythian)[거칠고 무례한 재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거기’는 ‘새 사람의 세계’를 가리킨다. 거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할레 받은 자나 할레 받지 않은 자, 야만인이나 문명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贖罪)와 의(義)가 충족하며 그 외에 무엇이 필요치 않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구원의 충족한 원인과 조건이시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치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이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계시다’는 말은 그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 계시다는 뜻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모든 죄를 씻음 받고 그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땅엿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땅엿것들은 이 세상의 헛된 일들과 죄악된 일들을 가리키며,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며 이 세상의 일들을 행하고 이 세상의 죄악 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즐기기도 하지만, 우리는 일시적이며 허무하고 많은 경우 죄악으로 더럽혀 있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그것들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한다. 실상,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는 허무한 것들이다(전 1:2).

둘째로, 우리는 위엿것을 찾아야 한다. 위엿것은 하나님과 그의 뜻과 그의 일에 관한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우리의 주된 관심을 하나님께 두며 천국에 두고 하나님의 일에 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두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두어야 한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일이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일이며 성화(聖化)를 이루는 일이며 전도하는 일이며 교회의 일들이며 참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선한 열매들이다. 우리는 그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런 일들을 힘써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특히 땅에 있는 지체, 곧 육신의 죄성을 죽여야 한다. 우리는 음란과 탐심과 분노와 악의와 훼

방과 더러운 욕설과 거짓말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온유함을 품어야 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덕스러운 말을 하며 진실한 말을 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代贖)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가 되었으므로 성도답게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버리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것으로 웃을 입어야만 한다.

주일오후설교 **사탄이 내어쫓김**

[계 12:1-2] 하늘에 큰 이적[표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의 한 큰 표적, 즉 해를 입은 한 여자의 광경을 보았다. 이 여자는 구약교회를 가리켰다고 본다. 그가 해를 입은 것은 교회가 의의 해이신(말 4:2)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나타내며(갈 3:27), 그의 발 아래 달이 있음은 교회가 온 세상을 복음 전파로 정복함을 나타내는 것 같고, 그의 머리에 열두 별의 면류관을 쓴 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나타내었다고 본다. 아이를 배어 해산하려 한 것은 구약교회가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한 것을 나타낸다고 보인다.

[3-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표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사도 요한은 하늘의 또 다른 하나의 표적, 즉 큰 붉은 용의 광경을 보았다. 그 용은 사탄을 가리킨다. 그것이 크고 붉은 것은 그의 세력이 크고 심히 잔인함을 나타내며 그의 머리가 일곱인 것은 그의 지혜가 매우 큼을 보이며 그의 뿔이 열인 것은 그의 힘이 매우 큼을 암시한다. 사탄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것은 사탄이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을 타락시킨 것을 가리킨 것 같다. 사탄과 더불어 타락한 그 천사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귀신들 즉 악령들이다. 그 용은 그 여자가 낳을 아이를 삼키려 하였다. 그것은 사탄이 헤롯 왕을 통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 일을 가리킬 것이다(마 2장).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때부터 그를 죽이려 하였고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게 하였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올려갔더라].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설명되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뿐 이시다. 그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리어 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리켰다고 본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1260일 동안 사탄의 핍박을 피하도록 광야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피난처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인다. 1260일은 신약시대 전체를 상징한 것이든지, 혹은 대환난 기간 중의 한 부분을 가리킬 것이다.

[7-8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것은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 곧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싸운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은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천사 미가엘과 사탄의 전쟁이 일어난 때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완성된 직후이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셨고(눅 10:18) 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하셨다(요 12:31). 사탄의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인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완성으로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다.

[9절]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속이닌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

큰 용은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범죄케 했던 옛 뱀, 곧 마귀 즉 사탄이며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이다. 사탄과 그의 미혹을 받은 천사들은 다 땅으로 쫓겨났다.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지금 성도들을 속이고 그들을 시험에 떨어지게 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핍박한다. 그들은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영들이다. 그들은 항상 이 세상을 속이고 더럽히고 불행케 해왔지만(엡 2:2)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게 하고 범죄케 하고 멸망시키려 열심을 내고 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지를 찾는 다”고 말하였고(벧전 5:8), 사도 바울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

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했다(엡 6:10-12).

[10-12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쫓겨났음이라.] 또 여러 형제들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때문에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들은 하늘의 큰 음성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영혼들의 음성이 분명하다. 그 음성의 내용은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밤낮 성도들을 참소하던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이었다.

또 그들의 음성은 진실한 성도들이 승리했음을 말하였다. 진실한 성도들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고 그를 믿었고 그를 사랑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고 증거했다(롬 14:7-8).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두 가지이었다. 첫째는 어린양의 피 때문이고, 둘째는 그들의 증거하는 말씀 때문이다. 어린양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은 실패치 않는다. 그의 피는 효력이 있다.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요 6:39)고 말씀하셨다. 또 복음의 말씀도 성도의 승리의 힘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를 주와 밋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말했다(행 20:32).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은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성도들을 헐뜯고 비난하던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탄이 땅에 내려왔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성도들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13-17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뱃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탄은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성도들에게는 그 핍박을 피할 길도 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성도의 믿음과 순종 같은 것이다.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피할 곳을 가지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심지어 땅도 성도들을 도와 사탄의 악한 활동을 막는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신약교회시대 혹은 대환난 기간의 일부인 삼년 반 즉 1260일을 가리킬 것이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표현은 대환난의 시작과 강화와 종단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다.

사탄은 진실한 성도들과 싸우려고 준비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미 죽은 자들과 순교자들을 제외하고 땅 위에 살아 있는 진실한 성도들을 가리킬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롭게 사는 자들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사탄과 악령들을 알아야 한다. 사탄은 큰 용, 옛 뱀, 마귀라고 불리며 온 천하를 속이는 자이다. 사탄과 악령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참된 교회 즉 참된 성도들을 대적하고 세상을 속여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사탄의 큰 싸움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사탄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신앙 생활은 사탄과 악령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강해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행해야 한다(엡 6:10-11).

셋째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한다. 앞서간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탄을 이기고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